

순백(純白)의 꽃나무

김호준 박사 / 그린과학기술원 원장



추천
6

6. 불두화

(1) 계통과 자연분포

불두화는 백당나무(*Viburnum opulus* L. var. *sargentii* (Koehne) Takeda, *V. pubinerve* Blume ex Miq. f. *intermedium* Nakai -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의 한 품종(Forma)으로서 학명은 *V. opulus* L. f. *hydrangeoides* (Nakai) H. Har 이다.

피자식물강(被子植物綱, Angiospermae ; 겉씨식물강) 꼭두선이목(Rubiales) 인동과(Caprifoliaceae)에 속하는 낙엽활엽관목으로서 백색의 꽃이 화려해 조경수로 크게 각광받는 나무다. 산야의 다소 습한 곳에 분포하는데, 주로 식재 분포되는 수종이다.

(2) 형태적 특성

① 잎

잎은 대생(對生, 마주나기)하며 수국이나 백당나무와 비슷하지만 중·상단부에서 3개로 깊게 갈라지는 것이 다르다(사진1). 가장자리에는 톱니모양의 불규칙한 결각(缺刻, incised form, 거치)이 뚜렷하다(사진3). 그러나 3갈레로 갈라지지 않는 잎도 있고(사진2), 가장자리가 밋밋한 잎도 있다(사진1). 잎의 끝은 점점 뾰족해지는 점첨두(漸尖頭 ; 서서히 좁아짐)이다(사진1, 2, 3).

잎 전체 길이는 5~10cm 내외이고 잎자루와 붙는 기부는 서서히 좁아지는 설저(楔底, cuneate ; 점점 좁아지는 새 혀 모양)다. 뒷면은 맥 위에 털이 있고 가을에 붉게 물들어 단풍이 아름답다(사진4). 엽병(葉柄, 잎자루)은 붉은색이 돌고 길이 2.0~3.5cm로서(사진3) 가지와 분지하는 기부에 탁엽(托葉, stipule, 턱잎)이 있다. 잎이 붙은 위쪽에는 2개의 밀선(蜜腺, nectary, 꿀샘)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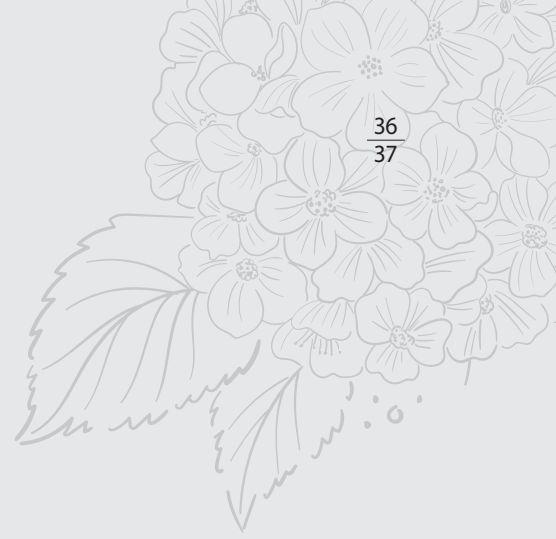


사진1. 3개로 갈라지고 밋밋한 엽연



사진2. 갈라지지 않고 결각이 있는 잎

② 꽃

꽃은 5월 중·하순~6월 초순에 걸쳐 흰색으로 피는 무성화(無性花, asexual flower ; 암술과 수술이 퇴화하여 결실하지 않는 꽃)로서 열매를 맺지 않는다. 2년생 가지에서 나온 새순(당년생 가지) 끝에 작은 꽃 여러 개가 모여서 뭉친 듯 둥글게 한 송이를 이룬다(사진5). 꽃송이는 직경 5~10cm 내외 크기인데, 처음에는 연한 초록색이나 점차 흰색으로 변하면서 탐스럽게 활짝 핀다(사진5, 6, 7). 순백으로 만개한 꽃송이는 눈을 뭉쳐놓은 것처럼 보여서 서양에서는 「snow ball」이라고 한다. 개화 기간이 길어 관상가치가 높으며, 누렇게 변하면서 꽃이 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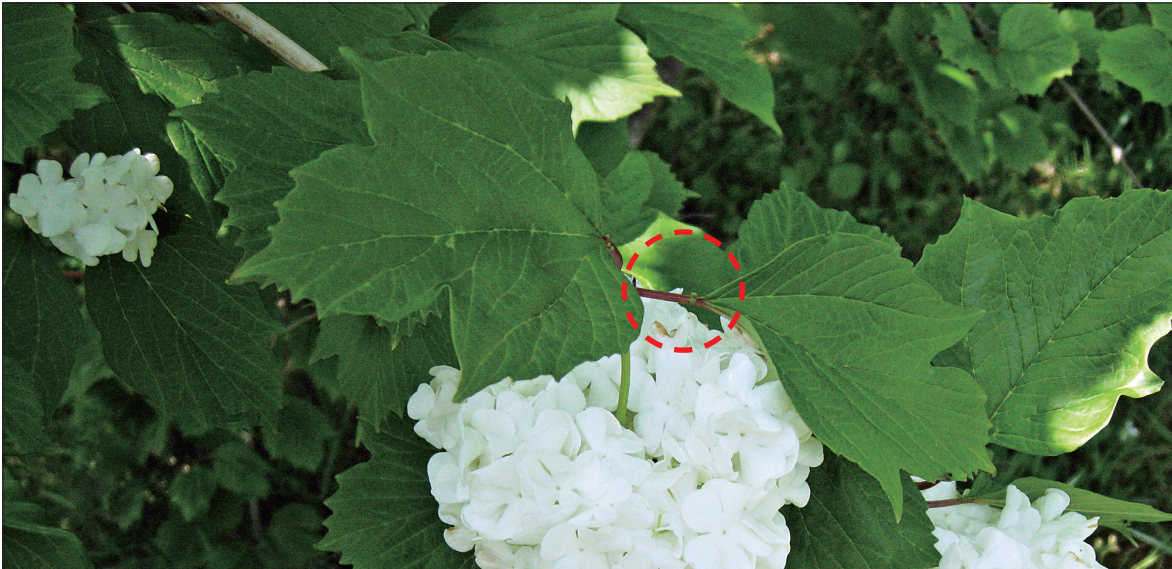


사진3. 3개로 갈라지고 가장자리 결각이 뚜렷한 잎. 적갈색 잎자루(점선 원)



사진4. 붉게 물든 불두화 단풍

■ 꽃 이야기

불두화(佛頭花)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부처님 불(佛)에 머리 두(頭)의 꽃 화(花), 즉 부처님 머리를 닮은 꽃이라는 뜻이다. 여러 개의 작은 꽃이 모여서 크게 한 송이를 이루는데, 작은 꽃들이 모여서 핀 모습이 마치 곱슬곱슬한 부처님의 머리를 닮았다는 것이다. 때마침 사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 즈음하여 피는 꽃이라서 더욱 깊은 착각에 빠져 빌려온 이름인듯하다. 사물을 바라보는 사람의 눈이란 때로는 생각하는 대로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지어진 이름인가 보다.

그뿐만이 아니다. 불두화는 암수가 없어 수분 수정을 하지 않는 무성번식(無性繁殖, unsexual propagation)하는 나무다.



사진5. 개화 직전 불두화 꽃봉오리와 3개로 갈라지는 잎



사진6. 만개 직전 녹색 꽃 불두화

즉, 암수의 수분 수정으로 자손이라는 열매를 맺지 않고 자신의 몸 줄기와 가지를 잘라 꺾꽂이 또는 휘묻이(layerage)를 하거나, 뿌리가름이나 근맹아(根萌芽, root sprout, root sucker)로 새 개체를 만들어 후대를 이어간다. 이러한 번식 방법이 스님의 성불(成佛) 과정을 닮아 그리 부르는 게 아닐까 한다. 연녹색의 꽃봉오리가 순백으로 변하면서 화려하게 피는 모습 또한 연꽃을 닮았다. 수수한 꽃봉오리의 화려한 변신은 성불한 불가(佛家) 정서를 닮아서인지 불두화(佛頭花)는 사찰조경 대표수종으로 자리하고 있다.



사진7. 만개한 순백의 꽃 불두화

■ 무성번식의 장단점

- 어미 나무의 우수한 유전형질이 전이된다.
- 생장이 빨라 조기에 식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 종자번식(유성번식)이 어려운 수종 증식이 가능하다.
- 특정 수종에만 적용 가능하다.
- 바이러스 감염에 약하고 유전병 발생 우려가 있다.
- 동일 유전형질이어서 환경변화 적응력이 약하다.
- 유성번식에 비하여 증식률이 낮고 증식 방법이 어렵다.
- 종자번식(유성번식)보다 저장, 운반, 식재 등에 고비용이 소요된다.

③ 가지와 줄기, 수형

줄기는 회갈색~회흑색을 띠고 수피가 불규칙하게 얇게 갈라지며 코르크층이 발달한다(사진8). 수고 2~3m 이상 자라는 관목으로서 근맹아가 발달하여 여러 대의 줄기가 땅속에서 나와 전체 수형이 덤불형으로 둥글게 자란다(사진10). 꽃이 만개하면 흰 꽃송이가 나무를 덮어 그 자태가 아름답다(사진9).

(3) 골프코스 조경

① 이동로 주변, 티잉그라운드 경사면 식재에 어울리는 나무

불두화는 흰 꽃이 피는 분단나무, 백당나무, 가막살나무와 덜꿩나무처럼 가시거리가 가까운 곳의 근거리 식재에 어울리는



사진8. 녹색 어린 가지와 꽃대(↖)와 회갈색 2년생 가지(↗)



사진9. 이동로 주변 덤불형 점상식재

나무다. 여러 식재 방법이 있으나 공원녹지, 기타 개활지에서는 3주씩 모아심기를 하여 마치 1주의 독립수 또는 덤불형으로 자연스럽게 가꾼다.

골프장의 도입 조경수로는 다음 홀로의 이동로 주변이나 교차로 모서리 식재에 알맞다(사진9, 10). 경기 진행상 플레이어들이 오래 머물게 되는 Hole, Short Hole 또는 각 홀의 티잉 그라운드(Teeing ground) 경사면에 식재하면 좋다.



사진10. 절 · 성토지 경사면 하단 피복식재

(4) 흰 꽃나무 개화시기와 종류

표1. 흰색계통 꽃나무와 개화 시기

월	성상 및 형상		수 종
2	상록수	교목	흰동백
	낙엽수	교목	매실(매화)나무
3	상록수	교목	흰동백
	낙엽수	교목	목련, 백목련, 매실(매화)나무, 올벚나무
4	상록수	교목	흰동백
		관목	다정큼나무
	낙엽수	교목	목련, 백목련, 별목련, 배나무, 돌배나무, 콩배나무, 사과나무, 채진목, 자두나무, 벚나무, 왕벚 · 올벚 · 산벚나무, 매실(매화)나무, 이팝나무
		관목	조팝나무, 공조팝나무, 옥매, 윤노리나무, 앵두나무, 병아리꽃나무, 단풍철쭉, 흰산철쭉, 미선나무, 분꽃나무, 분단나무
		만경	흰등나무

월	성상 및 형상		수 종
5	상록수	교목	태산목
		관목	다정큼나무, 피라칸타, 백정화, 돈나무
	낙엽수	교목	함박꽃나무, 일본목련, 산사나무, 돌배 · 콩배 · 팔배 · 아그배나무, 마가목, 귀룽나무, 야광나무, 사과나무, 채진목, 산벚나무, 아카시나무, 칠엽수, 층층나무, 산딸나무, 말채나무, 쪽동백나무, 때죽나무, 이팝나무
		관목	모란, 빈도리, 말발도리나무, 고광나무, 조팝 · 공조팝 · 당조팝나무, 국수나무, 해당화, 찔레나무, 옥매, 가침박달, 병아리꽃나무, 앵두나무, 고추나무, 흰말채 · 노랑말채나무, 흰철쭉, 단풍철쭉, 노린재나무, 쥐똥나무, 분꽃나무, 분단나무, 덜꿩나무, 가막살나무, 백당나무, 불두화, 미국딱총나무, 땃강나무, 괴불나무, 병꽃나무, 보리수나무, 뜰보리수
6	상록수	교목	태산목, 차나무, 제주광나무, 아왜나무
		관목	남천, 돈나무, 다정큼나무, 꽃댕강나무, 피라칸타, 광나무, 치자나무, 백정화
	낙엽수	교목	함박꽃나무, 일본목련, 마가목, 팔배나무, 아카시나무, 칠엽수, 헛개나무, 노각나무, 층층나무, 산딸나무, 말채 · 곰의말채나무, 쪽동백나무, 때죽나무, 이팝나무
		관목	고광나무, 빈도리, 말발도리나무, 개쉬땅나무, 찔레나무, 고추나무, 흰말채 · 노랑말채나무, 노린재나무, 쥐똥나무, 개회나무, 백당나무, 불두화, 인동덩굴, 미국딱총나무, 괴불나무, 보리수나무, 뜰보리수
		만경	으아리
7	상록수	교목	제주광나무
		관목	남천, 만병초, 치자나무, 꽃댕강나무
	낙엽수	교목	다릅나무, 솔비나무, 쉬나무, 노각나무, 배롱나무, 음나무, 곰의말채나무
		관목	빈도리, 나무수국, 개쉬땅나무, 무궁화, 인동덩굴, 미국딱총나무
		만경	으아리
8	상록수	관목	협죽도, 꽃댕강나무
	낙엽수	교목	다릅나무, 솔비나무, 쉬나무, 두릅나무, 음나무, 배롱나무
		관목	으아리, 나무수국, 개쉬땅나무, 무궁화, 누리장나무
9	상록수	관목	협죽도, 꽃댕강나무
		만경	보리장나무, 보리밥나무
	낙엽수	교목	배롱나무
		관목	무궁화, 누리장나무

월	성상 및 형상		수 종
10	상록수	교목	은목서
		관목	꽃댕강나무, 차나무, 애기동백, 팔손이
		만경	보리장 · 보리밥나무
	낙엽수	관목	무궁화
11	상록수	관목	차나무, 애기동백, 팔손이, 꽃댕강나무
12	상록수	관목	차나무, 애기동백, 팔손이

※ 진한 색 수종 : 수종별 개화가 시작되는 월

(5) 번식과 관리

삽목이나 근맹아를 캐서 번식시킨다. 삽목은 6~7월에 당년에 나온 가지를 2~3마디 길이로 잘라 삽수로 쓴다. 삽수(挿穗, cutting)는 절단면이 넓도록 비스듬히 잘라서 물에 담갔다가 다음날 농업 · 원예용 상토에 꽂는다. 하부의 잎은 따버리고 위쪽의 잎은 남기되, 잎이 크면 가위로 1/3 정도 매끈하게 잘라버리고 꽂는다. 상토가 마르지 않도록 매일 또는 1~2일에 1회 정도 관수하고 삽목 장소는 그늘진 곳이 좋다.

근맹아 번식은 지표 가까이의 뿌리에서 나온 근맹아(根萌芽, root sprout, root sucker ; 뿌리 움)를 캐서 옮겨 심는다. 삽목보다 성공률이 높으며 일찍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다. 건조한 땅에서는 생장이 불량하므로 수분조건이 좋은 토양에서 활착률이 높다.

내음성이 있고 건조에는 약하므로 수분공급이 원활한 지형에 식재하는 것이 좋다. 키가 크지 않아 아담한 수형을 이루며, 병해충 피해도 적어 관리가 수월한 편이다.



김호준 박사
그린과학기술원 원장